

#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립과 발전

姜敬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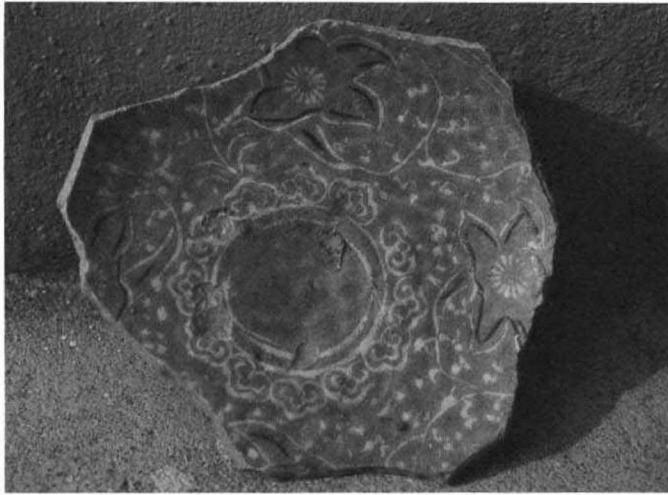
- I. 머리말
- II. 분청사기의 성립·발전(고려말-1410년대)
- III. 백자의 성립·발전(1420년대-1500)
- IV. 맺음말

## I. 머리말

15세기는 조선 왕조가 통치의 틀을 완비해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유교를 이념으로 한 조선 왕조의 권위와 명분체계는 '五禮'이다. 세종 때 「五禮儀」가, 그리고 세조-성종 때 『經國大典』이 편찬됨으로써 왕조 500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문화란 왕조나 제도가 바뀌었다고 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종 재위기간의 전반부까지도 고려 문화의 잔영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분청사기에서 관찰된다.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이 글은 2001년 6월 경기도박물관에서 개최한 '광주분원과 조선백자'라는 기념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광주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도1 청자상감연당초문대접편,  
전남 강진 사당리 미산부락 수습,  
강진청자자료박물관

경기도 광주는 1469년부터 백자 제작을 위한 관요가 설치되어 1884년까지 운영되었기 때문에 조선 백자 연구의 중심지이다. 광주 가마터의 지표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오다 1998년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되어 300여 개소의 가마터가 확인되었고, 발굴은 순수 학술발굴보다는 긴급 혹은 구제발굴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를 통해 관요의 부분적인 양상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요 백자에 대한 연구논문도 여러 편 발표되었다.<sup>1</sup> 그러나 아직까지는 관요 백자에 대한 천착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글의 목적은 광주에서의 백자 제작이 언제쯤,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어 1469년 관요가 성립하기에 이르렀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5세기 광주지역의 도자 양상을 『세종실록』 「지리지」의 자기소·도기소의 조사시기인 1424-1432년을 상한년 전후의 기준으로 하여 대체로 그 이전은 분청사기의 성립과 발전기로 보았고, 관요 성립 전까지는 1420년대

<sup>1</sup> 지표조사로는 정양모 외, 『한국백자도요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문화재연구소·해강도자미술관, 『광주의 백자요지 I』(1992);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경기도광주중앙관요: 요지지표조사보고서』 도판편, 해설편(1998·2000). 발굴보고서로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발굴조사보고: 변천리 5호, 선동리 2·3호』(1986); 『조선백자요지발굴조사보고전: 부광주 우산리 9호 요지발굴조사보고』(1993); 국립중앙박물관, 『광주군 도마리 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 도마리 1호 요지』(1995); 해강도자미술관, 『광주우산리 백자요지』(1995); 『광주건업리 조선백자요지: 건업리 2호가마유적 발굴조사보고서』(2000). 연구논문으로는 윤용이, 「조선시대 분원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 1, 2」, 『고고미술』 149·151(한국미술사학회, 1981); 강경숙, 「분원 성립 시기에 관한 소고」, 『초우황수영박사고회기념 미술사학논총』(1988); 김영원, 「분원설치를 중심으로 한 조선전기 도자의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등이 있다.

부터 시작하여 10년 단위로 백자와 분청사기와와의 관계하에서 발전상황을 살피고자 하며, 관요 성립 이후 1500년까지는 한 시기로 묶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sup>2</sup>

입론의 근거자료는 지표 수습의 도편이 중심이므로 먼 훗날 학술발굴을 통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그 진실된 실상이 밝혀질 때 성공할 수도 있고 혹은 실패할 수도 있겠으나, 후학들에게 다소나마 징검다리의 역할은 하지 않을까 한다.

## II. 분청사기의 성립·발전(고려말-1410년대)

강진의 청자 제작은 1340년대부터 이미 工匠이 유리되고 민수용 자기 판매상인이 존재하고 있어 요업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sup> 그리하여 강진 자기소는 해체되고 장인들은 강진으로부터 북동진 또는 북북진 하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예가, 고려말 강진지역에서 즐겨 사용한 도안 중의 하나였던 연당초문이 퇴화 혹은 변형되면서 1410년대까지도 대접의 중심문양으로 전국에서 계속 생산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당초문대접과 공반하는 종류는 성긴 인화문이 배풀어진 대접이다.<sup>4</sup> 이와 같은 분청사기의 초기적인 양상을 기준으로 할 때, 광주지역 일곱 마을 열아홉 곳에서 수습된 분청사기의 제작시기는 대략 고려말 어느 때부터 시작하여 1440년대에서 끝났다고 추정할 바 있다.<sup>5</sup>

고려말-1390년대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청자상감연당초문 '정능' 명대접>, 최운해묘 출토 <청자상감파도문완>, <분청상감 '의성고' 명병>, <분청상감연유문 '덕천' 명병> 그리고 강진 사당리 미산부락에서 수습된 연당초문대접편 등 다수가 있다<sup>6</sup>. 광주에서는 쌍동리 분청사기 가마터가 대체로 이 시기에 속한다(지도2).<sup>7</sup>

<sup>2</sup> 10년 단위의 편년은 필자 나름대로의 구분이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단지 10년, 100년, 1000년이라는 십진법이 관습상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sup>3</sup> 박경자, 「14세기 강진 자기소의 해체와 요업 체제의 이원화」(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p. 10-12.

<sup>4</sup> 강경숙, 「초기 분청사기가마터 분포에 대한 일고찰」, 『泰東古典研究』 10(태동고전연구소, 1993), pp. 957-1013(『한국도자사의 연구』(시공사, 2000), pp. 220-251에 재수록).

<sup>5</sup> 강경숙, 『분청사기연구』(일지사, 1986), pp. 72-141.

1400-1410년대는 광주 나름대로 분청사기가 성립·발전하는 시기로 <분청상감연당초문 '공안' 명대접>, <분청인화국화문 '공안부' 명대접>, <분청인화국화문 '공안부' 명접시>, <분청인화국화문 '경승부' 명접시>, <분청인화국화문 '인녕부' 명대접편> 등의 편년자료가 있어 분청사기의 양상이 파악된다.<sup>8</sup> 恭安府(상왕부), 敬承府(세자부), 仁寧府(상왕비부) 등과 같은 임시관청의 이름, 혹은 장흥고, 내자시, 내섬시와 같은 그릇과 관계되는 관아의 이름을 그릇에 새긴 것은 태종 17년(1417)에 관청 소용의 그릇이 도난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sup>9</sup> 광주에서는 임시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도편은 수습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도수리와 학동리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대체로 1417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속한다. 후술하겠지만, 도수리의 '도수분청 1호(보고서 '도수리 6호')'에서는 상감기법의 聖, 潤과 같은 명문이 수습되어, 『세종실록』 「지리지」 광주 토산조에서 자기소로 조사된 羔峴으로 보았고, 제작시기는 1420년 전후로 추정할 바 있다.<sup>10</sup> 또한 광주지역에서는 1400-1410년대에 백자 생산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아 1410년대까지는 분청사기만 제작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 III. 백자의 성립·발전(1420년대-1500)

#### 1. 백자 여명기·분청사기 겸용기(1420년대)

이 시기에는 『조선왕조실록』의 몇몇 기록에 주목하게 된다. 그릇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릇 밑에 장인 이름을 새기게 한 세종 3년(1421)의 기록과,<sup>11</sup> 세종 7년(1425)에 중국 명나라

6 강경숙, 『한국도자사』(일지사, 1989), p. 212 도252, p. 297 도341, p. 207 도249·251의 도판 참고.

7 강경숙, 앞의 책(1986), pp. 137-139의 도판 참고.

8 강경숙, 앞의 책(1989), pp. 280-281 도322·323·324·325, p. 284 도328의 도판 참고.

9 『太宗實錄』 卷33, 17년 太宗 4월 병자조.

10 강경숙, 「연당초문 변천과 인화문 발생 시고: 광주도수리 분청사기 요지 대접파편을 중심으로」, 『梨大史苑』 20(이대사학회, 1983), pp. 1-30; 同著, 앞의 책(2000), pp. 153-187;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앞의 책에 수록되어 있는 가마터 호수를 참조.

인종의 칙서를 가지고 온 尹鳳이 사기를 요구하여 광주목사가 白磁 210개를 정세번조하여 바친 내용 등이다.<sup>12</sup> 이처럼 1417년에 관청 이름을 그릇에 새기게 한 조치로부터 4년 후에는 그릇 밑에 장인 이름을 쓰게 하여 그릇의 질을 높이고자 한 노력이 주목된다. 현재 남아 있는 관청 이름과 장인 이름이 새겨 있는 그릇에는 백자가 한 점도 알려지지 않은 반면, 분청사기에만 관청 이름과 장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즉, 1417-1421년까지는 백자가 양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물로서 국가에 바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1421년까지는 백자의 생산은 일반화되지 않았으며 단지 퇴락해가는 청자계 초기 분청사기만이 제작되었고, 이러한 종류는 그 당시 특별한 명칭이 없이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磁器(沙器)로 보았다고 판단된다. 세종 5년(1423) 기록에 “海壽가 磁器를 요구하여 이를 허락한다”는 내용을 통해 볼 때 해수가 요구한 자기는 백자라기보다 분청사기를 말한 것이 아닌가 싶다.

1424-1432년 사이에 조사된 『세종실록』 「지리지」 광주목 토산조에 보면, 자기소가 네 곳, 도기소가 세 곳 기록되어 있다. 자기소 네 곳 중 세 곳이 동쪽에 있는 伐乙川(현 변천리), 所山(현 우산리), 羔峴(현 도수리)이고 石掘里만이 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네 곳 중 별을천만이 上品의 품질이고 소산과 석굴리는 下品이며 고헌은 품질 표시가 없다. 도기소는 남쪽에 초현, 동쪽에 초벌리, 서쪽에 이천이 있다고 했고 모두 중품과 하품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도기를 구웠던 가마자리는 아직 한 곳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sup>13</sup> 이러한 자기와 도기의 생산상황은 지리지 편찬을 위한 자료가 수집되던 시기 즉, 세종 6-14년(1424-1432) 사이에 실제로 제작활동을 하던 가마들이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자기와 도기가 일곱 곳에서 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 당시 자기와 도기의 구분기준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 중, 하품의 품질 기준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 나름대로 정리한 적이 있다.<sup>14</sup>

백자와 분청사기는 자기이고, 와기(瓦器)·항아리(缸)·독(甕)과 같은 종류는 도기로 구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은 자기소로 조사된 지역 가운데 지금도 세종 당시의 이름이 남아 있거나, 고증된 지역 모두가 분청사기 가마터라는 점이다.<sup>15</sup> 따라

11 『세종실록』 卷11, 세종 3년 4월 戊申.

12 『세종실록』 卷27, 세종 7년 2월 乙卯.

13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경기도 광주목 토산조, “磁器所 四 一在州東 伐乙川 上品, 一在州東 所山 下品, 一在州南 石掘里 下品, 一在州東 羔峴 陶器所 三 一在州南 草峴 中品, 一在州東 草伐里 下品, 一在州西 梨串 下品.”

14 강경숙, 앞의 책(1986), pp. 22-28.

서 당시에 자기로 분류한 것은 분청사기가 중심이고 여기에 백자가 포함되었던 사실, 가령 상품으로 분류한 광주 벌을천과 고령 예현리에서는 분청사기와 함께 약간의 백자가 수집되고, 백자는 육안으로 보아도 상품으로 식별됨으로 세종 당시에 이러한 백자를 상품으로 평가했으리라고 파악하였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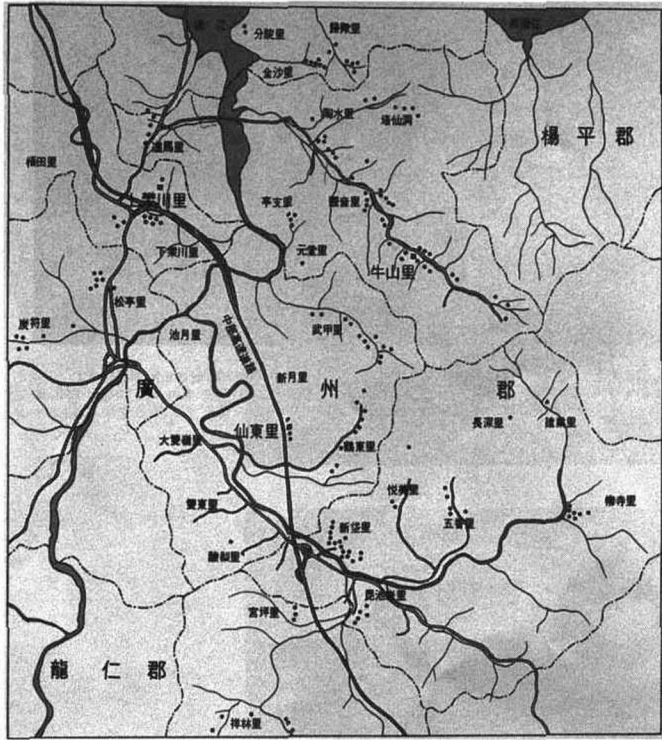
분청사기라는 이름은 일본인이 붙인 미시마(三島)라는 의미불명의 명칭이 적절하지 않아 고유섭 선생이 그 특징을 들어 1930년대에 붙인 이름이다. 세종 초년 『세종실록』 「지리지」를 준비하던 당시에는 분청사기라는 명칭이 없었고 고려 상감청자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일반 개념의 자기로 인식하여 자기소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139개소의 대부분이 분청사기이고 백자는 극히 드물었다고 판단된다. 자기와 도기에 관한 그 당시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성현(1439-1504)의 수필집인 『용재총화』가 있다.<sup>17</sup> 그런데 「지리지」의 185개 도기소 지명에는 자기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甗’, ‘瓦’가 들어간 지명이 여섯 지역에서 보인다.<sup>18</sup> 따라서 그 당시에 도기는 백자나 분청사기와는 뚜렷이 구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주지역에서 분청사기와 백자의 관계를 풀어가자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상, 중, 하품의 기준이 규명되어야 한다. 상품은 갑발에 넣어 정세 번조한 匣燻器이고 하품은 포개서 대량 생산한 그릇을 지칭했을 것이라고 보는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중품의 기준은 모호하다. 흑자는 갑발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포개지 않고 단독으로 제조된 그릇을 지칭했을 것이라고 하나, 중품 표시의 가마터에서도 갑발이 존재하고 있다. 애매한 점이 있으나 일단 이러한 기준을 전제로 하고 광주의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 당시(1424-1432) 광주에서는 벌을천에서 상품의 갑번자기를, 소산과 석굴리에서는 포개서 번조한 하품을 제작한 셈이다. 그리고 고현에는 품질 표시가 없다. 따라서 광주지역에서 분청사기와 백자의 관계를 파악하려면 분청사기와 백자가 같은 곳에서 수집되는 상품을 제작했던 변천리 일대 수습도편에 대

<sup>15</sup> 예컨대, 광주 변천리 → 벌을천(상품), 광주 도수리 → 고현, 공주 학봉리 → 동학동(중품), 공주 가산리 → 군지촌(중품), 보령 성현리 → 청연리(하품), 청양 장곡리 → 장곡동(하품), 부안 우동리 → 감불리(중품), 고창 덕암리 → 덕암리(중품), 상주 공성면 우하리 → 공성현 원동(중품), 고령 기산동 → 예현리(상품), 진주 효자리 중전부락 → 중전리(하품), 사천 송전리 포곡부락 → 곤남 포곡리(중품), 연기 송정리 → 전의 송현리(중품) 등이다.

<sup>16</sup> 벌을천은 지금의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 2리 산86번지에 위치하며 강경숙, 앞의 책(1986), pp. 93-102에서 발표한 바 있고, 고령 예현리는 지금의 기산동으로서 1998년 위덕대학의 박홍국 선생의 수집품 중에서 상품의 백자를 확인한 바 있다.

<sup>17</sup> 成倪(1525), 『慵齋叢話』 卷10(『大東野乘』 1, 국역총서 49(민족문화추진회,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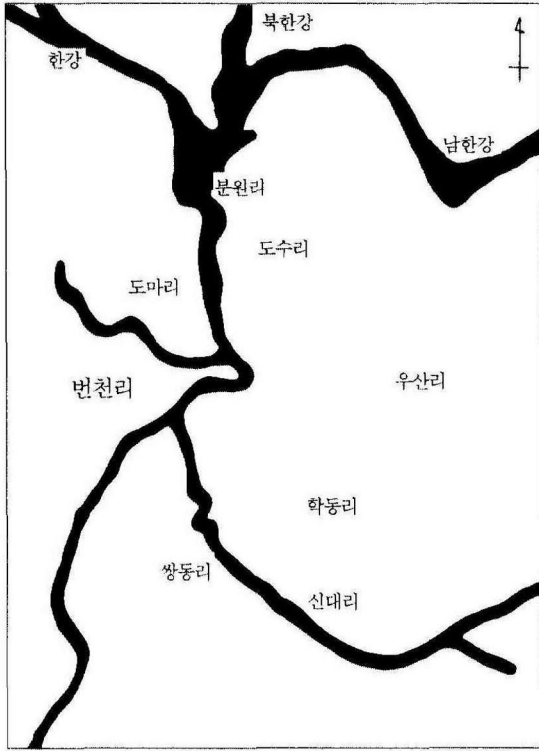
지도 1 광주 백자 가마터 분포도 (사적314)

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면 변천리에서 분청사기와 백자가 같이 수습되는 가마터를 살펴보자. 변천리에서는 10, 17, 20, 21호 등의 네 지역에서 분청사기만 혹은 분청사기와 함께 백자가 수습되었다. 10, 20, 21호의 세 가마터는 '변천분청 1호'로, 17호는 '변천분청 2호'로 이미 소개한 바 있다<지도1·2·3>.<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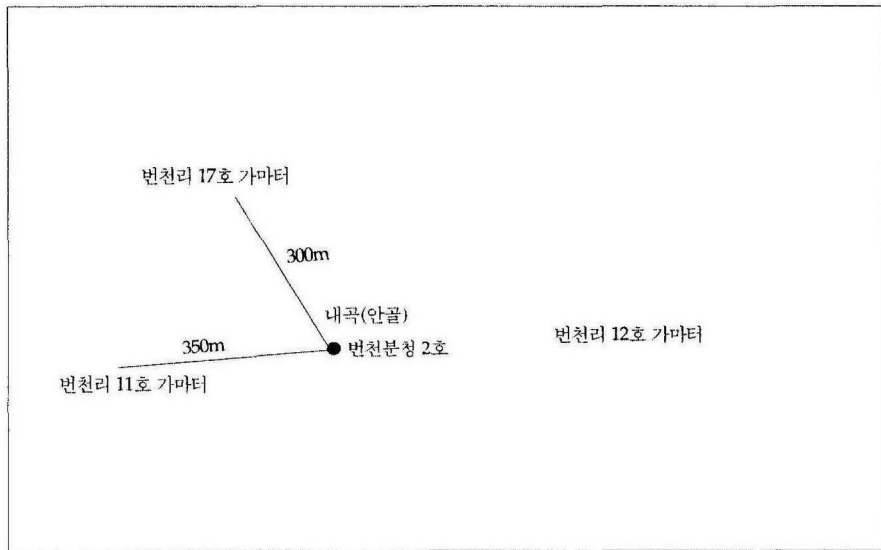
'변천분청 1호(변천리 10, 20, 21)' 도편의 특징은 대접, 접시, 병 모두 집단연권문의 인

18 "忠淸道 公州牧 在州南 粉浦黃甕匠 下品", "慶尙道 草溪郡 在郡東 吾士要里 專陶黃甕 中品", "慶尙道 普州牧 在州南 盤龍津 專陶黃甕 下品", "江原道 淮陽都護府 在州東 甕里 下品", "平安道 秦川郡 在郡東 瓦窯洞 下品", "咸吉道 預原郡 在郡西 廣城嶺下甕洞里 下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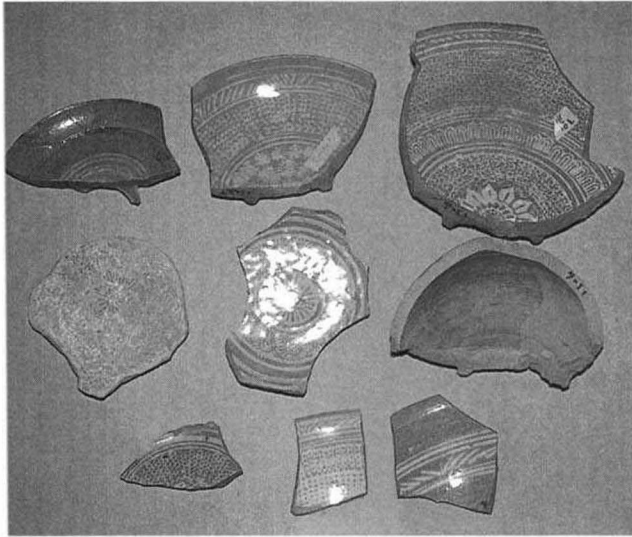
19 변천리 10, 17, 20, 21호는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경기도광주중앙관요』 지도편, p. 36, pp. 44-45, 도판편, pp. 128-133, 해설편, pp. 107-117을 참조. '변천분청 2호'는 경기도박물관 기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변천리 17호와 동일한 가마터로 보고 입론하였으나 오류이다. '변천분청 2호'는 변천리 17호로부터 동남간으로 약 300m, 변천리 11호로부터 동으로 약 350m 떨어져 있는 가마터로서 1998년 조사 당시 누락되었다 <지도 2·3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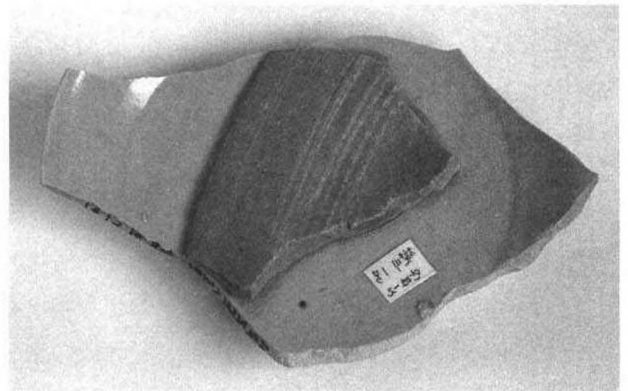
지도 2 『세종실록』 「지리지」 네 곳의 자기소 분포도, 번천리(伐乙川 상품), 우산리(所山 하품), 도수리(蒸岬), 학동리 혹은 신대리(石堀里 하품 추정) 쌍동리(고려 말-1390년대), 도마리(1505년 전후), 분원리(1752-1884년)



지도 3 '번천분청 2호' 위치도, 번천리 11호·12호·17호 가마터는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경기도광주중앙관요』, 「지도편」(1999), p. 36(이천 012)을 참고로 작성하였고, '번천분청 2호'는 11호와 12호 가마터 사이 내곡(안골)에 위치하였으며 필자가 조사한 것임.



도2 분청사기 파편 각종(내·외),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번천리 10호 수습,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3 백자접시에 붙은 분청사기편,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번천리  
번천분청 1호 수습, 개인소장

화기법이 주종을 이룬다. 집단연권문의 상태는 얇고 조잡하게 배풀어져 인화분청의 말기적인 양상을 보인다. 특히 대접 외면의 문양처리에서 소략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줄의 선을 두르고 귀알로 백토를 슬쩍 발라 선문 위에 귀알의 얇은 흔적만이 보이고 있는 점이다도2. 가장 주목되는 점은 백자접시에 분청사기가 붙어 있는 도편이다도3. 이는 동일가마에서 백자와 분청사기가 함께 번조되었던 사실을 보여주며, 특히 붙어 있는 두 도편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유약은 같고 다만 태도가 다를 뿐이다. 이 점은 이들 가마에서 백자 생산을 시도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광주의 백자 가마터에서 흔히 수집되는 갑발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상품 백자의 양산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다. 광주는 15세기 후반에

는 관요로서 백자 생산의 중심이 됨으로 분청사기는 '변천분청 1호'와 같이 말기적인 흐트러진 현상을 보이면서 백자 생산을 시도하다가 15세기 중반에는 거의 소멸되어 갔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도편이 백자집시에 붙은 분청사기편이다. 제작활동 시기는 상감기법은 거의 없고 어설픈 백토분장 기법 등의 현상으로 보아 대략 1430년대 이후 약 10여 년간 존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0</sup>

그런데 1997년 경기도박물관 조사에서 누락된 '변천분청 2호' 가마터는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 2리 산86번지 내곡(안골)에 위치하며 매우 주목되는 곳이다<지도3>. 이 가마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청사기편과 갑발이 뒤섞인 퇴적더미가 작은 야산을 뒤덮고 있는데 이곳의 갑발은 백자 전용이었다는 점이다. '변천분청 2호' 도편의 종류는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고 그 외에 뚜껑, 병, 대형 사발과 접시, 그리고 갑발과 도지미 등이 있다. 문양은 상감기법의 초문·평행문·모란문·여러 줄의 선문, 인화기법의 성긴 화문·육각관문·삼원문도4 그리고 촘촘한 인화문이고도5 그 외에 무문이 특징을 이룬다. 상감기법이나 인화기법의 문양들은 퇴조, 생략, 그리고 무문화의 경향이 현저하고, 대접은 내만형은 없으며 구연부가 외반한 양감이 있는 기형이다. 접시는 굽과 굽 주위는 시유하지 않았다. 또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할 때 나타나는 귀얄기법이라든지 덩벙기법과 같은 도편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귀얄기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백자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현상은 광주 분청사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변천분청 2호' 분청사기 도편에는 편년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없으나 대접과 접시의 문양, 형태, 굽양식 등으로 보아 15세기 전반의 특징을 보인다. 백자는 갑발에 넣은 상품 백자를 생산한 가마이기 때문에 질이 높은 백자 구연부가 붙어 있는 갑발편이 수집된다도6. 따라서 '변천분청 2호' 가마터는 세종 7년(1425) 명나라 사신으로 온 尹鳳이 요구한 十卓分 210개의 백자를 광주목사가 정세번조하여 바쳤다고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가마터일 가능성이 높다.<sup>21</sup> 광주지역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청사기 가마터는 1420년을 전후하여 10여 년간 활동한 '도수분청 1호' 가마터인데 이곳의 분청사기편들은 '변천분청 2호' 처럼 백자를 위한 갑발 등과 뒤섞여서 퇴적되지 않았으며, 시기적으로도 '변천분청 2호'가 약간 떨어지고 있다.<sup>22</sup> 따라서 '변천분청 2호' 가마터의 활동시기는 1425년을 전후하여 1440년경까지 적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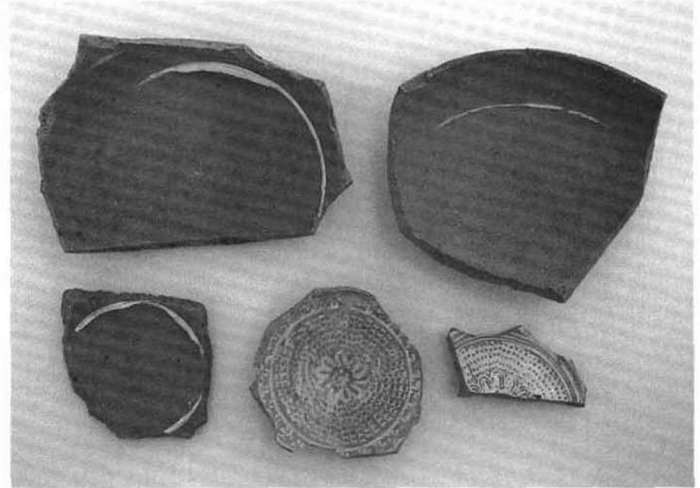
<sup>20</sup> 강경숙, 앞의 책(1986), pp. 93-95.

<sup>21</sup> 註12와 같음.



도 4 분청사기인화육각관문대접편,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 2리 내곡(안골)  
'변천분청 2호' 수습, 개인소장

도 5 분청사기인화화문대접편,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 2리 내곡(안골)  
'변천분청 2호' 수습,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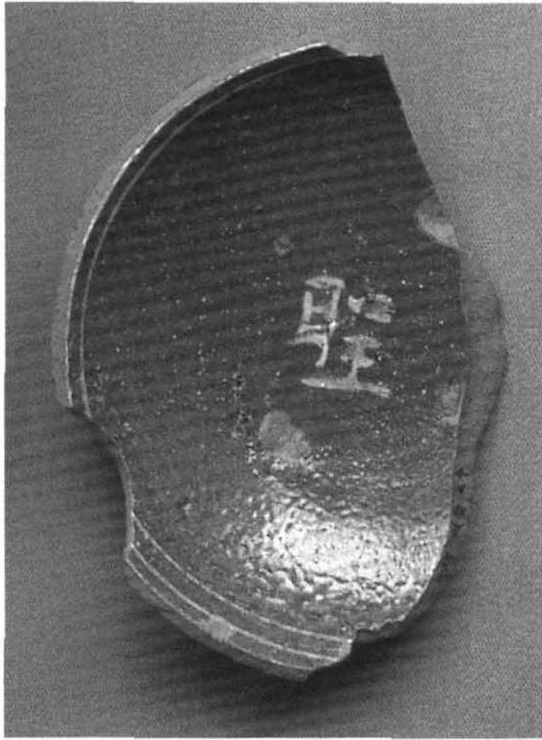


도 6 갑발에 붙은 백자 구연부  
흔적 · 분청사기편 2점,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 2리 내곡(안골)  
'변천분청 2호' 수습, 개인소장

10여 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때의 광주 백자 생산현황은 단독으로 백자만을 위한 전용가마를 운용했다기보다는 관청으로부터 특별한 주문이 있을 때는 분청사기 가마에서 백자만을 갑발에 넣어 분청사기와 동시에 제작하였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伐乙川上品' 이 바로 '변천분청 2호' 에서 제작한 갑번 백자라는 확신이다.<sup>23</sup>

22 강경숙, 앞의 글(1983); 同著, 앞의 책(1986), pp. 73-91.

23 강경숙, 앞의 책(1986), pp. 95-102.



도7 분청사기 '뽕' 명대접편,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도수분청 1호' 수습, 개인소장

'所山下品'은 우산리 2, 3, 4, 17호 중의 어느 한 가마터가 아닐까 하는데 여기에서는 상감백자와 그릇 안 바닥에 명문(內·用·士·司 등)이 있는 도편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품질 표시가 없는 '羔峴'은 그릇 안 바닥에 명문(聖·憫?)이 새겨진 분청사기 도편이 수집된 '도수분청 1호'(보고서 '도수리 6호')로 비정된다<sup>도7</sup>. '石堀里 下品'만은 현재 위치를 추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학동리 혹은 신대리 분청사기 가마터가 주목되며, 석굴리도 소산과 거의 같은 양상을 띠는 가마였을 것이다<sup>〈지도2〉</sup>. 이처럼 1420년대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같은 가마에서 제작되어 양자 겸용시기인 동시에 광주 백자 유명기로서 특징지을 수 있다.

## 2. 백자 성장기 · 분청사기 소강기(1430년대)

이 시기에는 백자 편년작품이 없는데 반해, 광주지역의 생산품은 아니지만 1437년이 하한인 <분청사기집단연권문곤남군장흥고명대접>, 정통 3년(1438)이 하한인 <분청사기인화국화문대접> 등이 있고, 청자계통으로는 1435년의 선덕10년명묘지, 1440년의 정통5년명반형묘지 등이 있다.<sup>24</sup> 문헌기록으로는 明 청화백자가 사신들을 통해 진상되는 기록과 도자제기 제작에 관한 기록이 있지만, 도자제기는 경기도 광주에서보다는 지방가마에서 주로 제작된 듯하다. 예컨대 광주 무등산의 충효동 분청사기 가마터 퇴적층에서 제기편이 다량 수습된

<sup>24</sup> 강경숙, 앞의 책(1989), p. 292 도338·339, p. 305 도349, p. 307 도350의 도판 참고.

표 1 광주 백자 가마터 성장 모습과 연대 추정표

가마	15세기	15세기 후반 -16세기 초 (天地玄黃이 있는 곳)	15세기 후반 -16세기 초 (天地玄黃이 없는 곳)	16세기	17세기	17세기 말 -18세기 초
우산리 (19개소)	2, 3, 4, 6, 7, 17, 18, 19, 20	1, 9	8, 10, 11, 13 14, 15, 16	12		
도마리 (7개소)	2, 3, 4, 5	1	6, 7			
도수리 (8개소)	1(17세기 중복) 3, 5, 6		2, 4		7	8
관음리 (35개소)	1, 2, 12, 13, 14, 15 (17-18세기 중복) 26, 29, 30, 31		20, 23, 24, 27, 28		3, 4, 5, 6, 7 8, 9, 10, 11	16, 17, 18, 19 32, 33, 34, 35
번천리 (20개소)	1, 2, 10, 11, 12, 13, 17, 18, 19, 20, 21		3	4, 5, 6, 7, 8, 9(天地玄黃), 15, 16		
귀여리 (11개소)	1, 2, 3, 4, 5 6, 7, 8, 9, 10	11				

(『경기도광주중앙관요』 해설편, pp. 353-363, '광주백자요지 현황' 인용)

것으로 보아, 정부는 금속의 부족으로 도자제기를 권장하기는 했지만 중앙 관아에서 금속제기를 썼기 때문에 15세기 경기도 광주에서는 제기편의 수집이 상대적으로 드문 것으로 생각된다.<sup>25</sup> 광주의 1430년대는 분청사기 제작은 큰 발전없이 소강상태였지만, 백자가마는 우산리, 관음리, 번천리, 도마리, 도수리, 귀여리 등을 중심으로 계속 성장하여 백자 생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15·16세기가 중심인 가마터의 성장모습과 연대추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 3. 백자 발전기 · 분청사기 소멸기(1440년대)

<sup>25</sup> 정소라, 「朝鮮前期 吉禮用 粉靑祭器 研究」, 『美術史學研究』 223(한국미술사학회, 1999), pp. 5-33.

1440년대는 백자의 편년작품은 없으나 백자와 청화백자에 대한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즉, 이들 기록이 광주 백자를 직접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高靈과 南原 백자에 대한 내용을 통해 廣州 백자의 위상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金宗直의 『佔畢齋集』에 의하면 先丈 金淑滋가 세종 24년부터 6년간(1442-1447) 고령 현감으로 재임하면서 사기장에게 사기 만드는 九節之法을 가르쳐 歲貢白沙器의 질이 광주나 남원보다 훌륭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도순찰사 김종서가 세종 27년(1445)에 고령현에 들렀을 때 김숙자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중에 상에 놓인 백사기를 가르켜 “…… 貴縣白沙器 甚善甚善 言至再三”이라고 했다는 내용이다.<sup>26</sup> 또한 세종 29년(1447) 4월 7일의 기록에는 司憲府 掌令 李亨墦이 아뢰는 내용 가운데 “병조판서 李宣이 개성부 留守가 되었을 때 역마 세 필을 黃在中에게 주어 전라도에 보내어 표전지(表箋紙)와 白磁器를 구해 왔는데 ……”라는 기록에 이어 황재중이 물건의 일부를 숨겼다고 하여 사헌부에서 문초를 받는 가운데 황재중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대목이 있다. “처음에 면주(縣紬) 세 필을 가지고 가서 표전지 12장을 샀고, 그 나머지는 전라감사와 절제사 및 남원부사 등이 증여한 油氈·鞍籠·白磁器 등의 물건인데 이미 지난 번 유수 이선에게 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실물은 확인할 수 없으나, 1440년대에는 우수한 백자가 광주, 고령에서뿐만 아니라 남원에서도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440년대에는 우수한 백자가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으므로 궁중에서 제사를 지내는 문소전과 휘덕전에서도 銀器 대신에 白磁器를 쓰라고 禮曹에 지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sup>27</sup> 그러나 광주가 이시기에 관요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기록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래에 제시한 자료 1-⑫와 ⑬의 두 기록은 청화자기에 관한 내용인데 성균관에 내린 靑畫沙大鍾이 국내 생산품이냐 하는 점이다. 즉, 화의 표기에서 ‘畫’는 국내산을, ‘花’는 중국산을 지칭했을까? 그러면 1420년대부터 진상 혹은 하사와 관계되는 도자기의 명칭을 어떻게 표기했는지 잠시 살펴보자(자료1).

〈자료1〉

① 세종 5년 8월 28일(1423): “海壽 求磁器 命許之”

<sup>26</sup> 정양모, 「백자론」, 『한국의 도자기』(문예출판사, 1991), p. 433; 전승창, 「15세기 도자소 고찰 I: 경상북도 상주 지역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호암미술관연구논문집』 1호(삼성문화재단, 1996), p. 95 참조.

<sup>27</sup> 『세종실록』 卷116, 世宗 29년 6월 甲子 “傳旨禮曹 文昭輝德殿所用銀器 自今代以白磁器.”

- ② 세종 7년 2월 을묘(1425): 윤봉이 10탁분 210개의 沙器를 요구하여 광주목사가 白磁를 精細燔造하여 바쳤다.
- ③ 세종 7년 2월 25일(1425): “윤봉이 銅甃兒沙器와 잡물을 담을 靑靑을 요구하니, 이를 주라고 명하였다.”
- ④ 세종 11년 1월 5일(1429): “金滿이 …… 크고 작은 磁器 아울러 1백 20개와 磁酒器 6개 …… 등을 요구하므로 명하여 이를 주었다.”
- ⑤ 세종 11년 5월 4일(1429): “李相이 임금에게 段子(무늬비단)와 毛子 한 필, 향대 하나, 暗花靑鍾 4벌(事)을 바치고 ……”
- ⑥ 세종 11년 6월 10일(1429): “대호군 윤중부가 白磁靑花大鍾 1事を 바치니 쌀과 콩 20석을 내렸다”
- ⑦ 세종 11년 7월 5일(1429): “李彬의 아내가 靑花磁器와 螺盃를 바치니, 쌀과 콩을 합쳐 30석을 하사하였다.”
- ⑧ 세종 11년 7월 9일(1429): 예조에서 계하기를 “윤봉이 …… 彩紋磁鉢 10벌(事), 磁椀 20벌(事) …… 를 요구하니, 다 주게 하소서”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 ⑨ 세종 11년 11월 2일(1429):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태평관에 거동하여 하마연을 배부니, 사신이 白磁靑花大櫛 4벌을 바쳤다.”
- ⑩ 세종 12년 7월 17일(1430):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 勅使를 맞아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칙서에 이르기를 “…… 頒賜品은 …… 靑花獅子白磁卓器 3卓, 靑花雲龍白磁酒海 3箇이었다 ……”
- ⑪ 세종 13년 6월 4일(1432): “張定安이 暗花磁櫛을 바쳤다.”
- ⑫ 세종 29년 9월 1일(1447): “靑畫沙大鍾 2벌(事), 白沙大鍾 2벌(事), 白沙大尊 4벌(事)과 술 150병 및 생선과 고기를 成均館에 하사하고 ……”
- ⑬ 세종 30년 3월 3일(1448): 예조에 전지하는 내용으로 “듣건대 중국에서 靑花磁器를 금하여 외국사신에게 팔거나 주면 죄가 죽음에 이른다고 하니, 이후로는 북경과 요동에 가는 행차에 磁器를 무역하는 것을 일체 금단하라.”
- ⑭ 문종 즉위년 8월 6일(1450): “尹鳳이 …… 靑畫白鍾5事 …… 靑畫沙盤9事, 靑畫臺盞1事を 바쳤고 鄭善이 …… 靑畫白堤碗10事 …… 靑畫茶鍾6事を 바쳤다.”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1420년대와 1430년대의 磁器, 沙器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도자기 일반을 칭하는 것으로 백자는 물론이고 청자계 분청사기와 분청사기도 아울러 지칭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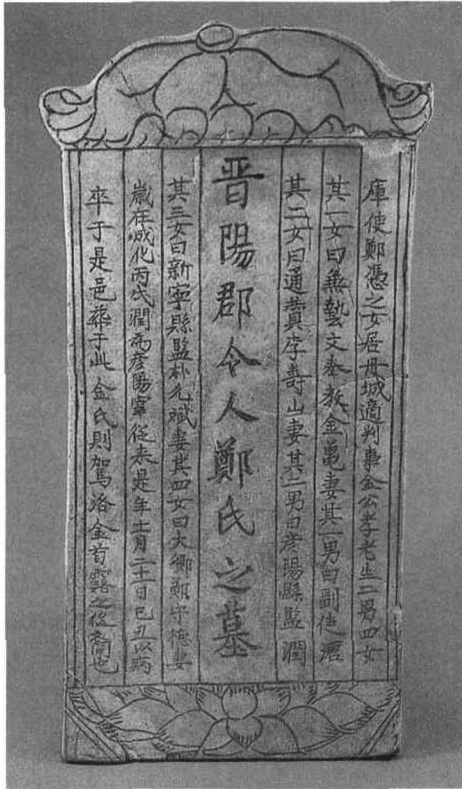
였을 것으로 보이며 백자는 白磁 혹은 磁器라는 용어로 쓰고 있었다. 중국산 청화백자를 왕에게 바칠 때는 대부분 青花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료 1-⑧에 보면, 윤봉이 彩紋磁鉢 10벌과 자완 20벌을 요구하여 이를 모두 주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세종 11년(1429) 당시의 채문자발은 상감백자를 혹은 분청사기를 말하는지 아니면 청화백자를 지칭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윤봉에게 청화백자를 준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됨으로 분청사기나 상감백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또 자료 1-⑪에 보면 暗花磁樑을 바치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이는 중국산 자접(자기접시)이었다고 생각되며 暗花가 어떤 종류의 무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자료 1-⑤에 李相이 暗花靑鍾 4事を 바쳤다는 내용의 암화무늬가 있는 청종은 자기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sup>28</sup>

그런데 세종 11-12년(1429-1430)의 기록에는 중국산에는 '花'자로 표기한데 비해, 17년이 지난 자료 1-⑫의 세종 29년(1447)의 기록에는 성균관에 내린 그릇을 '畫'자로 표기하고 있어 만약 이들 그릇이 국내산 청화백자라면, 세종 29년에는 이미 청화백자를 제작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자료 1-⑭는 3년이 지난 문종 즉위년(1450) 8월 6일의 기록으로써 윤봉과 鄭善이 임금과 동궁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바치는 내용 중에 靑畫白鍾 5사, 靑畫沙盤 9사, 靑畫臺盞 1사, 靑畫白堤碗 10사, 靑畫茶鍾 6사 등이 있다. 이들은 중국 제품이라고 보이는데 청화의 표기를 '畫'로 하고 있어 중국 청화그릇은 '花'로, 국내산은 '畫'로 엄격히 구별하여 표기한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청화백자를 가리킬 때 '靑花', '靑畫'를 혼용했지만 중국산일 때는 주로 '花'로 표기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자료 2-①·②·③·⑦에 보면 국내산 청화백자는 모두 '畫'로 표기한 점은 주목된다. 그러므로 자료 1-⑫의 靑畫沙大鍾은 국내산이 아닐까?

#### 4. 백자 융성기 · 청화백자 개시기(1450-1460년대)

1450-1460년대는 백자의 융성기인 동시에 청화백자 개시기이다.<sup>29</sup> 1450년대와 1460년대 20년간을 하나로 묶은 것은 문종과 단종이 각각 2년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

<sup>28</sup> 암화문에 대해서는 김영원, 『조선 전기 도자의 연구』(학연문화사, 1995), p. 85 註99에 "暗花文이란 靑花彩 밑에 음각된 문양을 말하는 것으로 이 음각문이 잘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의 배경과 실제의 작품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도 8 <백자상감 '진양군영인정씨묘' 명묘지>, 1466년, 호암미술관 소장

고 그간의 실제적인 조정자는 왕위에 오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세조(1455-1468)였기 때문이다. 특히 세조의 재위가 1450-1460년대에 걸쳐 있고 도자기에 대한 왕실의 생각이 연속 선상에 있다.

1455년 6월 세조가 즉위하면서 지난 5년간의 내란을 진압하고 정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제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 왕조 500년 간의 기본법전인 『經國大典』의 편찬이다. 따라서 광주지역의 백자 제작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 이를테면, 중궁에서는 금잔 대신 畵磁器를 쓰게 한다든지, 박당굴과 詩가 있는 畵鍾이 만들어지고 곧이어 회회청상사석을 채취하여 바치는 기록이라든지 또한 사헌부에서 진상하는 자기 외에는 공사처에서 쓰는 것을 일체 금할 뿐만 아니라 공조에서도 진상하는 백자기 외에는 공사간의 번조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관요 설치의 당위성이 하나 하나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분청사기 편년작품으로는 추풍령 황보마을 제품으로 추정되는 <분청사기인 화집단연권문 '덕령부' 명대접>(1455-1457), 光州 충효동 제품인 <분청사기인화국화문 '덕령' 명접시>와 <분청사기인화국화문월산군태항아리>(1454-1462) 등이 있다.<sup>30</sup> 상감백자의 편년

<sup>29</sup> 청화백자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필자가 1994년에 발표한 「분원 설치에 따른 분청사기 편년 및 청화백자 개시문제 시론」,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하)』(일조각, 1994)에서 1440년대로 추정된 바 있다. 그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도마리 가마터에서 청화백자편과 함께 수습된 <을축8월명도봉>의 연대를 1445년으로 보았던 것인데, 『도마리 발굴보고서(1995)』에서는 1505년 을축으로 추정하고 있다. 1505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보고서의 의견을 따르고자 한다. 그러나 1440년대의 청화백자 발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근거자료가 미약하여 재고하게 되었다.

<sup>30</sup> 강경숙, 앞의 책(1989), p. 287 도330·331 참고.

작품으로는 호암미술관 소장의 <백자상감 '진양군영인정씨지묘' 명묘지와 편병>(1466)과 <백자상감당초화문 '태일전' 명잔과 잔탁>(1434-1478) 등이 있다<sup>31</sup>. 이들 편년작품들은 모두가 광주지역 제품은 아님으로 단지 이들을 통해서 광주지역 분청사기나 상감백자의 편년을 상대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발굴한 우산리 2호, 9호, 17호 그리고 건업리 2호 등의 가마에서 상감백자편이 수습되었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우산리 2호·17호, 건업리 2호의 제작활동 시기는 15세기 중반을 전후로 추정하였고 '天地玄黃'의 문자가 새겨진 도편이 수집된 우산리 9호는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으로 추정하고 있어 상감백자가 수습된 가마들은 상감백자 편년작품들과 더불어 1450-1460년대의 광주백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sup>32</sup>

세조 즉위 후에 급속히 진행된 백자와 청화백자에 대한 관심이 어떠했나를 다음의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자료2>.

#### <자료2>

- ① 세조 1년 윤6월 癸亥 19일(1455): “工曹에서 中宮酒房에 金盞을 만들기를 청하니, 書磁器로 이를 대응하게 하고 東宮에서도 역시 磁器를 쓰게 명하였다.”
- ② 세조 2년 7월 乙未 28일(1456): 병조판서 申叔舟가 우의정 李思哲의 병문안을 갈 때, 임금이 田昉에게 명하여 몇 가지의 물건을 보내는데 여기에 “靑書兒大鍾 1事”가 포함되어 있다.
- ③ 세조 7년 6월 癸酉 4일(1461): “注書 李壽男에게 명하여 소주 5병과 아울러 靑鍾을 가지고 가서 좌의정 신숙주에게 내려 주게 하였다. 술잔(鍾)의 겉면에는 박덩굴에 박이 매달려 있는 형상을 그리고, 안쪽에는 임금이 친히 지은 詩를 썼는데, 그 시는 어려하였다. '경이 비록 나를 보고 웃을 것이나 내 박이 이미 익었으니 쪼개어 잔을 만들었다.' 이것은 지극한 정을 보인 詩였다.”
- ④ 세조 8년 11월 丁酉 7일(1462): 임금이 화위당(華韡堂)에서 연회를 하면서 활쏘기를 하였는데 “…… 임영대군 廖, 영의정 신숙주 등이 활쏘기에서 좋은 점수를 땀기 때문에 靑鍾을 하나씩

<sup>31</sup> <백자상감초화문태일전명잔과 잔탁>의 추정연대는 권소현, 「조선 15세기 상감백자의 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 28-29 참고. 상감백자의 도판은 강경숙, 앞의 책(1989), p. 349 도390·391, p. 353 도392, p. 370 도400 참고.

<sup>32</sup> 해강도자미술관, 『광주우산리 백자요지 2호』(1995); 『광주우산리 백자요지 II: 17호 백자요지 시굴조사보고서』(1999); 『광주건업리 조선백자 요지: 건업리 2호 가마유적 발굴조사보고서』(200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전: 부 광주우산리 9호 요지 발굴조사보고』(1993).

주었으며 권람에게는 漢江圖 한 폭을 주었다.”

- ⑤ 세조 9년 5월 壬子 24일(1463): “전라도 敬差官 丘致剛이 강진에서 回回靑을 얻어 바쳤다.”
- ⑥ 세조 9년 7월 庚申 3일(1463): 경상도 경차관 柳綬이 여러 고을에서 나는 특산물을 바치는 것 중에 “…… 眞寶縣의 深重靑, 密陽府의 回回靑相似石 …… 盈德縣의 深重靑相似石, 義城縣의 回回靑相似石 …… 熊川縣의 有光 白土.”
- ⑦ 세조 10년 8월 戊子 7일(1464): “전라도 경차관 구치동이 順川府에서 캐낸 回回靑相似石으로 畫沙器를 鑄造했고 아울러 강진현에서 캐낸 靑鐵을 바쳤다.”
- ⑧ 세조 12년 4월 戊午 18일(1466): 司憲府에 傳旨하는 내용 중에 “…… 磁器는 이제부터 進上하는 것 외에, 公私處에서 널리 행하여 쓰는 것을 일체 금한다. 京外에 匠人이 몰래 숨어서 磁器를 만들어 지자안(市裏)과 朝官, 庶人의 집에서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는 자는 違制律로 논한다.”
- ⑨ 세조 12년 6월 丙午 7일(1466): “工曹에서 아뢰기를 ‘白磁器는 進上和 이전에 鑄造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公私間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사람은 工人까지도 制書有違律로서 科罪하도록 하고 또 貢物을 정하지 말고서 公私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제조하는 폐단을 방지하며, 무릇 白土가 산출되는 곳은 소재읍으로 하여금 盜用을 금하고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여 本曹와 승정원에 간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⑩ 세조 13년 4월 己亥 7일(1467): “司饔房을 고쳐서 司饔院이라 하고 비로소 祿官을 두었다.”
- ⑪ 예종 1년 10월 乙卯 5일(1469): 국내산 회회청의 안료를 구하고자 노력하는 내용이다. 즉,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전라도 관찰사에게 전하기를 “강진현에서 생산하는 회회청은 일찍이 채취하여 시험해 보았더니, 간혹 진실한 것이 있었다. 경은 널리 방문하여 공사간의 沙器를 구워 만드는 때에 모름지기 회회청과 비슷한 沙土를 써서 시험하여 아뢰라. 읍인이 이 채색을 얻어서 바치면 혹은 벼슬을 상 주되 벼슬을 특진(超資)하여 관직을 다시 주겠다(叙用)하며, 혹은 배 50 필을 상 줄 것이니, 本道의 居民에게 널리 알려라 하고, 아울러 여러 다른 道에도 알렸다.”

이상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세조가 즉위한 1455년에 금잔 대용으로 ‘畫磁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1461년에는 ‘畫鍾’에 박당굴과 詩를 적은 술잔의 제작 그리고 1462년에는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畫鍾’을 하나씩 주었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국내에서 청화백자가 이미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1463년 5월과 7월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차관 구치동과 유완이 각각 회회청과 회회청 상사석을 구해 바치고 있고, 1464년 8월에는 구치동이 순천부에서 회회청 상사석으로 畫沙器를 번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록을 통해

불 때 백자나 청화백자의 번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467년 12월에 반포되는 『經國大典』에는 戶典과 刑典이 일차로 제정 반포되었는데, 형전 禁制조에는 “大小員人으로서 …… 酒器 외에 金·銀·靑靑白磁器를 사용하는 자는 杖 80에 처한다고 하여 庶人男女를 불문하고 靑靑酒器의 사용을 금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세조 13년(1467)에는 백자와 청화백자의 제조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 2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세조가 즉위한 1455년 이후 줄곧 준비되어 온 상황이 1467년에 금제조항의 법조문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450년대 후반부터 1460년대 초에는 청화백자가 제조되었음은 거의 확실하다. 이때의 상황은 成倪의 『용재총화』에서도 “세종조 여기는 백자가 전용되었고 세조조에 이르러는 彩磁를 함께 사용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466년 4월과 6월에는 자기는 진상하는 것 외에는 공사처에서 쓰는 것을 일체 금함에 따라, 지방의 장인이 몰래 자기를 만들어 시장이나 朝官, 庶人의 집에서 매매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백자기는 진상하는 것 외에는 貢物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를 방지하여 사사로이 제조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백토 산출지는 모두 工曹나 承政院의 장부에 기록하여 간수하게 한 조치가 내려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진상 백자는 어떤 체제에서 조달되었을까? 1467년 4월 사용방이 사용원으로 기구가 확장되고, 1469년 9월에 『경국대전』 工典이 완성됨에 따라 바로 다음 달인 예종 1년 10월에는 회회청을 구해 바치는 사람에게는 벼슬로 상을 주되 초자 서용하고 혹은 벼 50필을 주겠다는 약속을 국가가 합법적인 차원에서 전국에 알리고 있다. 따라서 조선 백자의 제작은 1469년 9월 이후 관장제 수공업체제로서 사용원의 파견 관청인 分院에서 사용원 관리가 담당하기에 이른다.

그러면 이 시기에 비정되는 가마터는 어디일까? <표1>에 보면, 15세기로 추정된 가마터는 대략 우산리 9곳, 도마리 4곳, 도수리 4곳, 번천리 11곳, 관음리 10곳, 귀여리 10곳이다. 15세기 후반-16세기 초 혹은 16세기로 비정된 가마터 중에서 ‘天 地 玄 黃’의 문자가 수습된 곳은 우산리 2곳, 도마리 1곳, 번천리 1곳, 오전리 2곳, 무갑리 5곳, 학동리 2곳, 열미리 1곳, 귀여리 1곳 정도이다.<sup>33</sup> 이들 가운데서 우산리 9호(1482년경, 혹은 1542년경), 도마리 1호(1505년 하한?), 번천리 9호(1552년경)만이 학술 발굴되어 대체적인 활동시기가 가늠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표 수습 도편만을 가지고서는 1450-1460년대의 백자의 양태라든지

<sup>33</sup>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해설편(2000), pp. 353-363.

가마터의 확인은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상감백자가 수습되는 가마터가 이 시기를 설명해 주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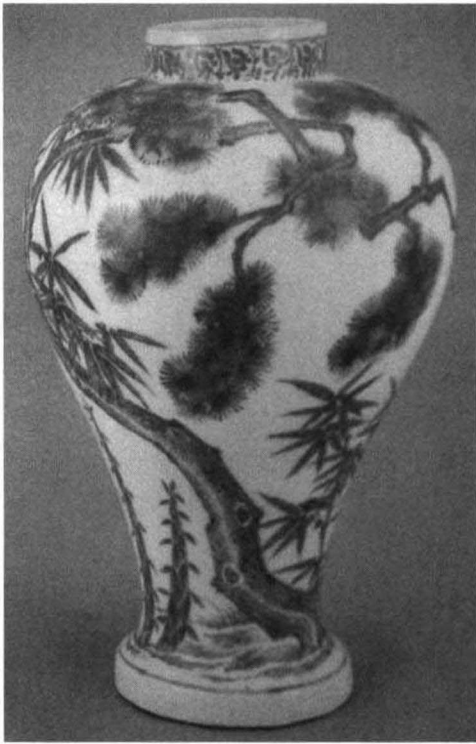
## 5. 관요 백자 시기(1469-1500)

1470년 이후 24년간은 성종의 치세기간으로 태평성대를 누린다. 1481년에 편찬된 『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 편찬) 경기도 광주의 토산조에 “매년 사용원 관리가 畫員을 대리고 와서 御用之器를 감조한다”는 내용은 백자 제조가 관장제 수공업체제였음을 말해준다. 지리지에 1481년에 편찬되려면 적어도 1470년대가 자료조사 기간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에는 임금이 쓸 그릇을 굽는 가마가 14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관리가 머물 장소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관요의 체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며 이를 사용원의 분관으로서의 ‘分院’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sup>34</sup>

1470년대의 기록에 보면, 1475년과 1477년에 사대부, 豪富, 임금의 내척과 외척들이 중국제 청화자기를 쓰고 있어, 법으로 사치를 규제한 정부정책에 위배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sup>35</sup> 자기는 1466년에 이미 진상하는 것 외에는 공사처에서 일체 사용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공물에서도 제외시킴으로써 공물을 빙자하여서도 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중국산 수입그릇이 1470년대에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반면, 진상되는 백자는 날로 발전해 갔는데 그 단적인 예가 절대기년이 있는 <백자청화송죽문 ‘홍치2년’ 명항아리>(1489)이다. 이 항아리의 완벽한 치밀질 백색 태토와 馬夏派 화풍을 보여주는 소나무의 필치는 관요 자기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sup>9</sup>. 그러나 이러한 작품이 제작된 것은 회회청 안료를 구하려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겠지만, 결국은 국내산 회회청의 구득으로는 생산 자체가 어려웠고 公貿易으로 해결되고 있었다. 1478년과 1488년의 기록을 살펴보자.

<sup>34</sup> 강경숙, 「分院성립 시기에 관한 소고」,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論叢 美術史學研究』(통문관, 1988), pp. 655-663(「분원성립 시기」, 『한국도자사의 연구』(시공사, 2000), pp. 408-427 채수록).

<sup>35</sup> 『成宗實錄』卷55, 成宗 6년 5월 庚申 12일; 『成宗實錄』卷77, 成宗 8년, 윤2월, 戊申 10일; 『成宗實錄』卷77, 成宗 8년 윤 2월 辛亥 13일; 『成宗實錄』卷77, 成宗 8년 2월 壬子 14일.



도 9 <백자청화송죽문 '홍치2년' 명항아리>, 1489년,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성종 9년(1478) 8월 11일의 기록을 보면 도자기에 쓰고자 한 회회청은 아니었지만 尙衣院에서 쓰는 회회청에 관한 내용인데 결국은 같은 안료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知事李克培가 通事 張有誠에게 들은 말을 인용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내용으로써, “臣(이극배)이 상의원에서 쓰는 회회청을 보니 그 소비가 매우 큼니다. 쇠망치로 푸른 덩어리를 부수어서 그 가운데 즙살 같은 것을 취하여 쓰는데, 장유성이 신에게 이르기를 ‘중국 사람은 그 쓰는 것이 이와 같지 아니하니, 내가 익혀서 시험하면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장유성을 불러 다시 그 법을 물어서 이번에 북경에 가는 畫工으로 하여금 전수하여 익히게 하소서”라는 내용이다.<sup>36</sup> 또 10년 후의 기록으로는 성종 19년(1488) 1월 10일에 한성부 판윤李克墩 등이 아뢰는 내용으로 “…… 畫員 李季眞이 일찍이 公貿易하는 회회청의 값으로 흑마포 12필을 받고서 마침

내 사오지 못하였다 ……”라는 내용은 회회청을 이미 공무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이처럼 1480년대 어느 때부터는 회회청이 일정한 공무역으로 조달되고 있었기 때문에 분원의 청화백자의 제작이 본국에도 달했을 것이고 그 증거가 위에서 소개한 <백자청화송죽문 '홍치2년' 명항아리>이다. 이처럼 백자의 제작이 높은 경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는 白磁杯를 사람의 인격에 비유한 것이다. 즉, 성종 22년(1491) 12월 7일에 백자배를 승정원에 하사하고 전하여 말하는 내용으로써 “이 술잔은 맑고 티가 없어서 술을 따르면 티끌이나 찌꺼기가 다 보인다. 이를 사람에게 비유하건대, 마치 大公至正하여

<sup>36</sup> 『成宗實錄』 卷95, 成宗 9년 8월 11일 庚子.

<sup>37</sup> 『成宗實錄』 卷211, 成宗 19년 1월 10일 丙午.

한 점의 허물도 없게 되면 善하지 못한 일들이 용납될 수 없는 것과 같다.”<sup>38</sup> 이 내용은 백자에 대한 당시인의 도자관이다.

이와 같이 질이 좋은 그릇을 만들려면 좋은 태토뿐만 아니라 가마의 구조와 땀나무 조달이 필요하다. 성종 24년 5월 18일과 25일(1493)에 각각 가마구조와 땀나무에 관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18일에 사옹원 提調로 있는 柳子光이 立釜와 臥釜의 가마형상에 대하여 제의하기를 “와부는 불길의 그 안에서 마구 돌아치기 때문에 사기그릇이 찌그러지기 쉽습니다. 이번에 吳愼孫을 통해서 중국에서 입부로 사기를 굽는 법을 들었는데 그것이 매우 그럴 듯 합니다. 입부는 불길이 곧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구운 그릇이 다 똑바로 됩니다. 그러나 입부를 만들자면 이전에 있는 진흙을 써야 하겠으니 부근의 고을에 지시하여 흙을 사기소까지 실어오게 하여 시험해보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이 의견에 따랐다고 한다.<sup>39</sup> 입부와 와부의 구조는 잘 알 수 없으나 입부는 중국식 돛가마 흔히 만두요라고 부르는 구조가 아닌가 싶지만, 아직까지 광주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단지 가마의 아궁이 구조만을 입부와 와부로 보아 아궁이 구조를 구덩이같이 깊이 파서 불꽃을 곧추서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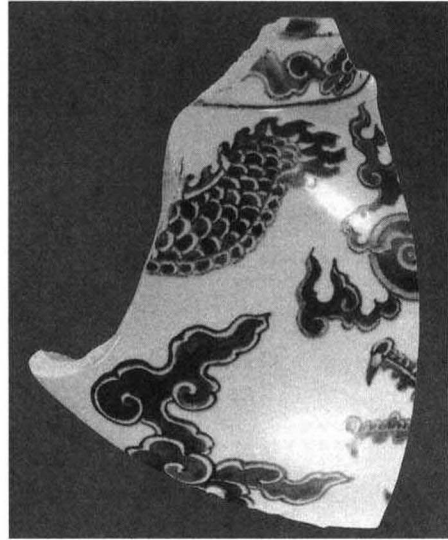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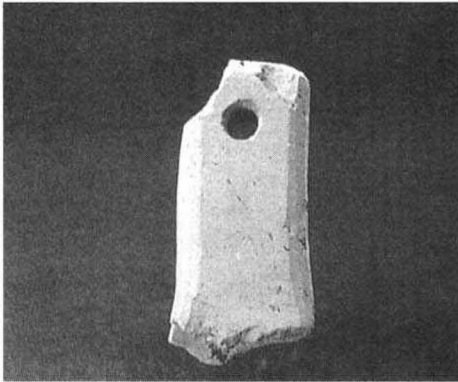
성종 24년(1493) 5월 25일의 기록은 매우 주목되는데, 당시 땀나무를 베어 쓸 수 있었던 마을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軍器寺 도제조 盧思愼이 군기시의 땀나무하는 영역에 沙器所가 옮겨와 땀나무와 숯을 넉넉히 쓰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임금에게 보고함에 따라 임금이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大典』에 군기시의 땀나무하는 곳은 20리의 둘레로 규정하였으나 사옹원 사기소는 땀나무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고 땀나무가 많은 곳을 따라 옮겨가고 있다.”<sup>40</sup>라고 하면서 同知 中樞府事 成健과 左承旨 金應箕 등에게 지시를 내려, 이들이 사옹원과 군기시의 땀나무한 곳에 가서 조사해 보고 지형을 그려서 올렸는데 임금이 이를 보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羔岫, 加仍邑山, 木刈山, 余末洞, 無涯山 都麻峴을 다 사옹원에 주어 이전대로 탄 사람이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면서 만약 화전을 일꾼 사람이 있으면 죄를 지우고 수확한 곡식은 관청에서 몰수할 것이다 ……”<sup>41</sup>라는 지시 내용이다. 이를 보면, 당시의 지명을 다 밝힐 수는 없으나 고점은 세종 당시 고점(현 도수리)이고 무예산은 무갑산(?), 도마현은 도마리임에 틀림 없다. 특히 도마현은 도마리 1호가마와 연관이 있지

<sup>38</sup> 『成宗實錄』 卷260, 成宗 22년 12월 己酉 7일.

<sup>39</sup> 『成宗實錄』 卷277, 成宗 24년 5월 辛巳 18일.

<sup>40</sup> 『成宗實錄』 卷277, 成宗 24년 5월 戊子 25일.

<sup>41</sup> 『成宗實錄』 卷277, 成宗 24년 5월 戊子 25일.



도 11 백자청화용문항아리편,  
경기도 퇴촌면 우산리 9호 출토,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0 乙丑八月명 사각봉,  
1505년 추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않을까 한다. 도마리 1호의 청화백자 시험편, 청화백자 문양, 상감백자편, 청자돈, 향로 등과 같은 도편으로 보아 적어도 15세기 중엽경부터 시작하여 후반 어느 때에 관요로서 활동했으리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을축8월명토봉”(1505년 추정)은 음각으로 문자를 새긴 것으로 보아 16세기의 특징이 짙으며, 이 점을 감안한다면 도마리 1호요의 하한연대쯤이 아닌가 싶다(도 10). 도마리 가마터는 1965년 발굴 당시 가마 유구는 밝히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다섯 기 정도의 가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유일한 기년작인 <백자청화송죽문 '홍치2년' 명항아리>는 어느 가마 제품일까? 지금까지 발굴된 상황으로 보아서는 도마리 1호 아니면 우산리 9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산리 9호 출토 백자청화용문항아리편은 청화 발색에서 <백자청화송죽문 '홍치2년' 명항아리>와는 친연성이 엿보이고(도 11), 특히 우산리 9호 출토의 “壬寅”명편은 1482년 혹은 1542년으로 추정됨으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도마리 1호와 우산리 9호 가마의 선후관계가 주목되는데 이 점 역시 치밀한 비교 연구와 학술발굴이 뒤따라야 할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도마리 가마

터가 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쉽게도 가마터의 현상이 완전히 변질되어 유적 현장의 연구 환경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세종실록』 「지리지」 광주 토산조의 “벌을천 상품”이라는 기록을 중심으로 1469년 관요 성립까지 백자의 발전과정을 10년 단위로 살펴봄으로써, 15세기 관요 백자 생산의 상황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면모가 파악되었다.

광주지역 자기 생산의 시작은 14세기 강진 상감청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14세기 말 분청사기로 출발한다. 이들 분청사기는 1440년경까지 제작되었고 귀얄이나 덩빙기법의 표면 백자화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또한 집단연권문기법이 일부 베풀어졌으나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바로 백자 생산체제로 들어간 광주만의 특수한 현상이 파악되는데, 이는 광주가 1469년 백자 관요로서 자리잡기 때문이다.

분청사기는 세종 당시 백자와 함께 자기로 분류되었다. 백자는 1420년경 분청사기와 같은 가마에서 함께 제작되는데 백자만은 갑발에 넣어 갑변 백자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겸용의 가마터가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 2리 산86번지 丙谷(안골)에 있는 ‘변천분청 2호’로 추정하였다. 이곳이 『세종실록』 「지리지」 광주 토산조 자기소에 기록된 “在州東 伐乙川 上品”으로 평가받았던 가마로 파악하였다. 1450년대 「오례의」가 편찬되고 또한 청화백자 제작에 대한 세조의 강한 관심과 노력은 1469년 『경국대전』 공전 사용원에 380명의 장인을 등록시킴으로써 관요가 법제화되었다. 관요를 ‘分院’이라고 하며 이로부터 광주의 관요 백자 시대가 열린다. 그러나 초기의 분원가마가 어느 곳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지 도마리 1호와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절대 기년작품은 〈백자청화송죽문 ‘홍치2년’ 명향아리〉이다.

따라서 15세기 경기도 광주백자는 1420년대 여명기를 거쳐 1430년대 성장하여 1440년대 크게 발전하며, 1450년대 청화백자를 제작하고 드디어 1469년 관요(분원)로 정착한 후 왕조 500년간 관요 백자의 역사를 펼쳐나갔다.

\* 주제어: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 청화백자, 분청사기, 관요

## ABSTRACT

# The Inception and Development of White Porcelain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during the 15th Century

**Kang Kyung-sook**

The 15th century was a crucial perio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ing system and regimental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Begun under King Sejong (1418-1450) and finalized in 1474, the Confucian-derived five cardinal principles of conduct were codified in the Oryeui (The Five Rites of State), considered to be the foundation of the Dynasty's sovereignty and royalty. The compilation of the Gyeongguk Daejeon (The National Code) was initi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1455-1468), to establish the administrative framework of the Joseon government.

Official records during the Joseon Dynasty adhered to the tradition of faithful transcription of daily events in minute detail. These records render it possible to gauge the inception, growth, and establishment processes of white porcelain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ir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Apparently, the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 in the Gwangju area began around 1420 at the same kilns where punchong ware was still produced, although white porcelain may have been processed in individual encasements. Such conjecture derives from the records contained in the Gwangju section of the Sejong Sillok Jiriji, or the Ge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Eight Provinces, included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1432).

From the 1430s to 1440s, white porcelain experienced further growth while punchong

ware gradually disappeared. During the 1450s to 1460s, the development of white porcelain flourished.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blue-and-white porcelain also appeared. Such blossoming was prompted by the keen interest shown by King Sejo, as evidenced by the numerous records contained in the *Annals of King Sejo* (1455–1468). Most notably, with the establishment of official kilns in 1469, systematic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 began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under the control of Saongwon, or the Bureau of the Palace Kitchen Management, heralding the 500-year history of white porcelain of the Joseon Dynasty.